

암호화폐를 이용한 “돼지도살(Pig Butchering)” 사기범죄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gress of Pig Butchering Crimes Using Cryptocurrency

송혜진*

HyeJin So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emyung University, Jecheo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HyeJin Song, knupe21@hanmail.net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sks and criminal progress of pig murder fraud crimes in the absence of related research and statistics amid a surge in pig murder fraud damage in Korea, and to approach the method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that can be prevented in Korea through foreign cases. **Method:** In order to classify the types of pig murder fraud crimes, the progress was analyzed through related reports and statistics, and various damage cases. **Result:** The crime of pig murder fraud can be seen as an organized crime that organically combines simple romance scams, investment fraud, and human trafficking. In the case of victims, unlike simple fraud, psychological problems such as suicide impulse and panic disorder were found, and in the case of cryptocurrency acquired through fraud, a path was found to flow back into the criminal organization through money laundering. **Conclusion:** In the case of pig murder fraud crimes that have been detected as a danger worldwide, the scale will be even wider. Therefore, various institutional supplements and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hrough crime type analysis in Korea for crim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Keywords: Pig Butchering, Fraud Crimes, Romance Scam, Virtual assets, Organized crime

요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도 이미 돼지도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 및 통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돼지도살 사기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진행경로는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돼지도살 범죄에 근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돼지도살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및 통계, 다양한 피해사례를 통해 진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돼지도살 사기범죄는 단순한 로맨스스캠, 투자사기, 인신매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범죄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경우 단순 사기와 달리 자살충동, 공황장애 등 심리적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고, 사기로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조직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발견하였다. **결론:** 전세계적으로 위험이 감지된 돼지도살 사기범죄의 경우 그 규모는 더욱 방대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을 위해 범죄유형 분석을 통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돼지도살, 사기범죄,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조직범죄

Received | 20 August, 2024

Revised | 23 September, 2024

Accepted | 23 September, 2024

 OPEN ACCES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론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국내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시장도 전 세계 점유율의 약 10%에 달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주요 거래소는 약 5개 정도로 대표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누적 거래대금은 약 1400조 원에 달하고 있다.¹⁾ 특히 IT 보안업체들은 개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노린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사기범죄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산종사기 범죄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 아시아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돼지도살(Pig Butchering)’이라는 새로운 투자사기 기법이 발견되고 있다. 돼지도살은 로맨스 스캠²⁾과 암호화폐 투자 스캠³⁾의 혼종으로 미국의 FBI에서도 여러 차례 ‘돼지도살(Pig Butchering)’사기에 대해 경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보안업체인 코펜스(Cofence)의 로니 토크조우스키(Ronnie Tokazowski)도 2022년 한 해 동안 ‘돼지도살’기법은 2021년 대비 127% 증가했다고 설명하였다. 돼지도살 사기는 중국어인 ‘사주판(Sha Zhu Pan) 스캠’으로 분류되었고 중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를 거쳐 미국 또는 영어권 나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단순 개인 범죄가 아닌 조직범죄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산업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미국 등지에서는 돼지도살 사기범죄에 대해 연구하며 사기 예방을 위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암호화폐가 성행하면서 그에 따른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형태나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검거도 쉽지 않다. 특히 투자사기로 분류되는 유형의 사이버 공격은 2022년 한 해 동안 30억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⁴⁾ 돼지도살(Pig Butchering)의 경우 로맨스 스캠과 연결되다 보니 사기 범죄 중 신고율도 낮아 실제 피해액은 공식발표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돼지도살 사기범죄 피해자 중에는 반 스캠기구(GASO)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기구에 따르면 피해자의 2/3는 25~40세의 여성으로 사기 피해액은 평균 12만 2,000달러에 달한다. 그렇다면 돼지도살이라는 사기 기법이 이렇게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영향이 있다. 사람들의 교류가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되고 이러한 취약한 상황이 사기에 이르게 되는 점이 이 범죄의 확산이유라고 할 수 있다. ‘돼지도살’ 기법은 공격을 가하는 범죄자들이 이러한 사회현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용했는지 보여주었고, 영리하게 악용했는지는 증명한 사례이다.

그렇다면 ‘돼지도살(Pig Butchering)’사기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돼지도살(Pig Butchering)’은 로맨스 스캠과 암호화폐 투자 스캠이 혼합된 형태이다. 이미 로맨스 스캠은 수년 전 유행이 지난 듯 보이는 사기범죄이지만 이것이 암호화폐와 연결되고 그 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20~30대들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앞서 아시아에서 등장한 사기범죄이지만 미국 전역과 유럽까지 확산되는 양상으로 볼 때 피해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미 돼지도살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연구 및 통계가 전무한 상황으로 돼지도살 사기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진행경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돼지도살 사기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https://xangle.io/insight/research/63732339bd7cbc367e003134>

2) 로맨스스캠이란 로맨스와 산종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눈 및 이메일 등 온라인 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한 뒤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마음을 흔들어서 사기치는 방법이다.

3) 암호화폐 투자스캠은 일명 폰지사기나 가짜 ICO 등을 이용해 사기치는 암호화폐 사기유형 중 하나이다.

4) <https://m.boanews.com/html/detail.html?idx=115086>

돼지도살(Pig Butchering)의 이론적 논의

돼지도살과 사기

돼지도살(pig butchering) 사기⁵⁾는 로맨스나 우정에 투자사기를 혼합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재정적 자유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신종사기 범죄이다. 사기꾼들이 신뢰를 쌓아 피해자에게 가짜 플랫폼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후 자금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수법으로 데이트 앱이나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Instagram, Discord, YouTube, Facebook 및 LinkedIn), 메신저 앱(Telegram, whatsapp)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Song, 2023). 돼지도살이라는 무서운 말이 쓰이게 된 이유는 돼지도살은 돼지를 살찌게 한 뒤 도살하여 많은 고기를 얻어 내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암호화폐를 구입하게 하고 기존의 사기 범죄처럼 투자금의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을 어느 정도 준 뒤 투자 규모를 최대한 늘려 한 번에 가로챈 후 사라지는 수법으로 도살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로맨스 스캠과 같이 연인과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우정 등을 이용한 사기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의 경우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유인해 가짜 암호화폐로 바꾸도록 유인한 뒤 돈을 갈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기를 당해도 피해자가 사기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안기업 프루트포인트(Proofpoint)의 셰럿 드그리포(Sherrod DeGrippe)는 “암호화폐 사기는 암호화폐만큼이나 오래됐지만, 이번 돼지도살 사기범죄의 최신 연구에서 암호화폐 사기의 구조 및 행태가 더 복잡해지고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돼지도살 수법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도살’ 사기 범죄는 공격행위자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금을 노리고 피해자는 수익에 눈이 멀어 결국 과감한 투자를 하다가 살찌워진 돼지가 된 뒤 공격당하고 공격행위자들은 돈을 챙겨 사라진다. 돼지도살이 다른 사기와 또 다른 점은 사람의 취약한 마음, 즉 외로운 마음이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파고들기 때문에 공격행위자들은 사회현상을 잘 이용하고 있으며 단순 스팸메일을 뿌리거나 전화하는 방식이 아닌 공을 들이는 방식으로 좀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악질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돼지도살’ 사기 범죄는 아시아에서 시작해 영어권 지역에 이르기까지 공격행위자들이 사기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여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 사기이며, 일명 새로운 형태의 로맨스 스캠으로 암호화폐 투자사기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 등의 결합형태로 보고 있다.

돼지도살의 사기유형 및 실태

돼지도살 사기유형

돼지도살의 사기유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미 데이트 앱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암호화폐나 금 등에 투자하는데 관심을 갖게 하여 피해자들이 직접 자금을 예치하도록 다양한 투자 방법을 소개한다. 공격행위자(사기꾼)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하게 한 후 가짜 웹사이트나 앱을 소개함으로써 사기를 칠 기회를 노리게 되며 피해자들은 공격행위자들이 알려준 사이트나 앱을 통제하고 많은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사기 수법을 쓰고 있다.

돼지도살 사기 수법에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⁶⁾.

5) <https://crypto.com/university/ko/pig-butchering-scams>

첫째, 가짜 투자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한 사기이다. 공격행위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 웹사이트나 앱을 소개하여 배당금을 주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전에 이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도 뒤늦게 알아차리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둘째 메타트레이더 4(MT4), 메타트레이더 5(MT5)의 가짜 브로커 등을 이용한 사기 형태이다. MT4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으로 주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할 때 사용되며 금융시장은 외환, 원자재, 주식, 지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입금하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다. MT5는 트레이딩 플랫폼 중 하나로 MT4의 후속 버전으로 외환, 주식, 지수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나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데 MT5를 지원하는 브로커를 선택하여 거래수수료 및 입금금액, 지원하는 금융상품 등을 선택하여 브로커에게 계정을 생성하고 입금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메타트레이더 MT4, MT5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브로커가 아닌 가짜 브로커에서 속아 사기를 당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짜 유동성 마인딩 풀로 탈중앙화 앱을 이용한 사기이다. 유동성 풀이란 스마트 계약에 잠겨있는 토큰 모음으로 이 토큰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사람과 직접거래하는 대신 풀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필요없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고 유동성 풀에는 토큰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거래수수료와 소득을 얻을 수 있다.⁸⁾ 즉 거래가 이루어지면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좋고 큰 금액의 거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 중앙화 거래소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유동성 마인딩 또는 이자 농사라고 칭한다. 대신 위험성도 있고, 루나 사태와 같이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에 과정들이 모두 가짜로 이루어지는 사기유형이다.⁹⁾ 넷째, 그룹 투자 형식의 사기 형태로 코인 다단계 사기, 문자 메시지나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신뢰 형성 뒤 거래의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 거래를 제안하고 도와주는 형식의 사기 수법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도박을 이용한 사기유형이다. 온라인 도박플랫폼을 이용한 사기유형으로 기존 가상화폐 사기유형으로 분류가 되었고 돼지도살 스캠 종류 중에 하나로도 나타나고 있다.

돼지도살 사기유형은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가 합쳐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사기행위들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피해자 스스로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는 인지하더라도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하기조차 어려워 사법 처리의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다.

돼지도살 사기 실태

국내에서는 돼지도살 사기범죄에 대해 정확한 통계나 피해 사례 등을 연구한 자료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미국 FBI의 범죄신고센터(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IC3))¹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투자사기가 가장 큰 디지털 위협이라는 입장과 동시에 2022년 디지털 사기로 발생한 피해 금액이 33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IC3는 가짜 결재를 유도하거나 합법적 결재의 경우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2022년 24억 달러, 2023년 27억 달러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공격행위자들이 메시지나 이메일을 잘못 보낸 척하며 연락한 후 신뢰 형성 뒤 대화를 시작하고 거래의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83% 증가한

6) <https://www.globalantiscam.org/about>

7) <https://writhinglab.tistory.com/entry/>

8) <https://www.oeth.com/ko/liquidity-pool-defi>

9) <https://m.blog.naver.com/criptoturtle2510/222822684773>

10) <https://www.ic3.gov>.

수치이다. GASO(Global Anti-Scam Organisation)¹¹⁾에서 발표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55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평균 손실액은 \$ 155,117이며, 미국 평균은 \$ 210,760으로 75% 이상이 순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 1/3은 범죄자들에 의해 빚으로 내몰렸으며 심지어 도축단계에서는 가족을 잃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주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을 팔아야 했으며 이렇게 하도록 지도받고 속이고, 압박 등을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피해자의 69%가 여성이었고, 25~40세 사이의 연령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혼자는 21% 정도였고, 대부분이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고학력자들이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가 57%, 석사학위 6%, 박사학위가 25%로 대학 이상을 나온 피해자들이 88%이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인구의 13%만이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놀라운 수치인 것이다. 사기 범죄유형이 결코 무지해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21년 GASO 웹사이트 개설 이후 돼지도살 사기(ShaZhuPan)로 인해 1,200명의 피해자가 이 웹사이트에 피해를 호소하였고 그들의 손실액은 2억 5,600만 달러에 이른다. 이것이 전 세계 피해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텍사스 대학 존 그리핀 교수는 사기 피해자 4,000명의 암호화폐 주소를 수집해서 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둔 사기꾼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범죄 네트워크가 750억 달러 이상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옮겼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사기만 2024년 126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신고 건수가 기록되었고,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이름 등도 생소한 물류통관 사기, 돼지도살, 채팅 환전사기, 가상 부동산 사기, 페이크 쇼핑몰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이 존재한다. 이미 유명 연예인들도 사기를 당하고 있지만 경찰이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사기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격행위자들의 IP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은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돼지도살은 향후 확장의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과 보고서와 한정된 통계 등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돼지도살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와 사기 범죄유형을 분류하여 범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법적제재와 피해금 회수 방법 등 사법기관의 범죄예방 및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돼지도살 사기의 진행경로 분석 및 논의

돼지도살의 사기의 진행경로 분석

돼지도살 사기의 작동방식은 문자 메시지나 웹사이트 및 앱을 이용하여 접근하게 되고 환심을 사기 시작하면서 사기는 시작된다. 피해자와 신뢰가 형성되면 본인들의 부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특정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거래 간 이익이 난 것처럼 보여준 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권유한다. 그 후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한다. 그 후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신뢰를 잃고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돼지(피해자를 의미)¹²⁾’는 도살될 준비가 된 것으로 사기꾼은 사기 친 금전을 가지고 사라지고 피해자는 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범죄조직에 의해 운영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올해 초 돼지도살 계획에 대

11) <https://www.globalantiscam.org/post/statistics-of-crypto-romance-pig-butchering-scams>

12) 돼지도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뢰를 잃는 경우 도살 준비가 됐다는 뜻도 있고, 큰돈을 투자하게 한 후 돼지를 살찌게 한 뒤 죽여서 많은 고기를 얻게 되는 것을 빗대어 쓰고 있다.

해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들이 사기 수익으로 다양한 자금세탁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FBI도 이러한 범죄 내용에 대해 발표하면서 특정유형의 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확산되는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¹³⁾ 본 연구는 돼지도살 사기 범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하여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범행 경로를 작성하여 범죄행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단순 로맨스 스캠이 아닌 국제범죄조직이 연루되어 있어 이러한 진행 과정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예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언하고자 한다.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돼지도살 범죄 경로는 Fig. 1과 같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접근단계에서는 잘못된 메시지 등을 보내는 척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이 과정에서 친분관계를 쌓아가게 된다. 로맨스 스캠을 접목한 사기범죄로 SNS 등에 직업, 나이, 프로필 사진 등을 속여서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신뢰감이나 친밀감 형성으로 긴장감을 늦춘 다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둘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공격행위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이는 과거에 누군가 하나 걸리면 사기를 치겠다는 형식이었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한 명만 잡고 끝까지 가서 다 갖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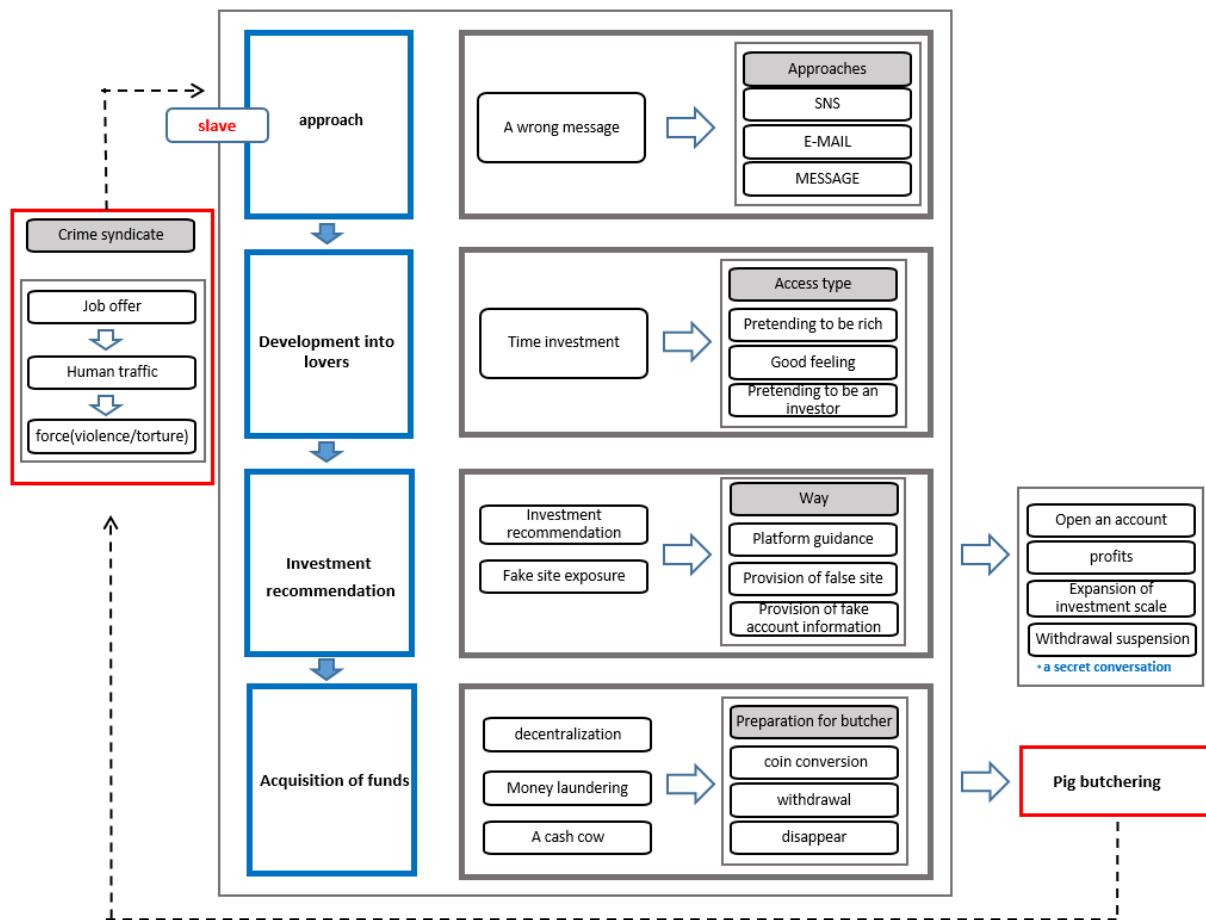


Fig. 1. An analysis of the criminal paths of pig butchering

13) [https://www.cryptopolitan.com/us-authorities-pig-butcherer-crypto-scam/\(2023.06.28.\)](https://www.cryptopolitan.com/us-authorities-pig-butcherer-crypto-scam/(2023.06.28.))

효율성이 좋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가성비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부유한척하거나 호감형으로 비취지게 되고, 투자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자신이 많이 투자한 곳에 수익이 난다고 대화 중 정보를 흘리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셋째, 어느 정도의 라포가 형성되면 투자를 권유하며 본인이 직접 하는 곳이 아니라 투자 또는 관리하고 있는 플랫폼 등을 소개하거나 거짓 사이트를 제공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짜 계정 정보 등을 제공하여 투자를 받게 된다. 거짓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중간중간 수익금 인출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진행한다. 그러나 중간에 실수가 있거나 피해자가 이상을 감지해서 투자금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공격행위자들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책임을 전가하며 다시 재투자 등을 권유한다. 그 후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인출을 정지시켜 도살 준비를 감행하게 된다.

넷째, 이미 자금이 획득되었다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암호화폐는 옛날 방식인 금융기관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자금세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현금화해서 인출된 돈을 가지고 사라지게 되며 돼지는 도살된 것으로 보면 된다. 즉 피해자는 피해를 직감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공격행위자들은 과연 범죄조직에 연루된 범죄자들일까? 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제안받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오게 되면 인신매매하거나 감금하여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동남아에서 4개월 동안 갇힌 중국인이 탈출한 사건이 있는데 돼지도살 사기의 범죄자들도 결국 피해자들 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만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건 딥페이크를 이용한 화상통화와 공격행위자들의 SNS를 통한 거짓 정보들이 피해자들을 손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

다음 Fig. 1은 돼지도살 범행 경로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범죄 진행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들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가 가능한 국제 조직범죄라고 할 수 있다. 돼지도살 사기를 실행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자들을 유인하여 인신매매 후 감금 및 구타하고 유인책으로서 역할을 준다.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그들은 범죄조직이 시키는 돼지도살을 준비하고 암호화폐 등의 수익이 창출되면 빠르게 자금세탁하고 현금화하여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된다. 단순 로맨스캠이 아닌 돼지도살 사기는 조직적이고도 교묘하고 잔인한 범죄로 발전되고 있다. 이에 돼지도살 사기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노예들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돼지도살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범죄신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돼지도살 사기는 로맨스캠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로 사기 이후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를 이용한 범죄이기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을 느껴 신고 속도가 빠르지 않거나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피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인관계로 발전했기 때문에 속았다고 믿고 싶지 않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사기유형의 결합체이다. 돼지도살은 유인책들을 이용해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후 결국 투자하게 하여 그 수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세탁된 돈은 현금화를 통해 범죄조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범죄조직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들은 다시 범죄에 악용되는 반복된 패턴

을 보이고 있는데 자금세탁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도 트렌드에 맞춰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인신매매, 마약 거래 등 조직적이고 암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돼지도살 사기는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범죄예방과 수사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를 접목한 ‘돼지도살’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 범죄조직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내에서도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가 전무한 상태이고 신고율도 낮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돼지도살 사기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며 법집행기관, 규제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점점 더 다양한 신종사기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양한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손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사기 범죄에 대해 조사기관 자체도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Song, 2023).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외로움을 빌미로 돼지도살 사기 범죄자들이 급증하였고, 아시아에서 시작했지만 서구권에서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짧은 시간에 범죄가 진행되지만, 돼지도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시간적 투자를 하는 등 공을 들이기도 하고 암호화폐에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는 등에 행위들이 이루어지면서 공격행위자들이 사회적 현상을 잘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마구잡이 공격을 했다면 현재는 정확한 표적 하나를 선별하여 공격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이 날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여 시도하고 있다. 이는 향후에도 돼지도살 사기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이유이다. 돼지도살 사기는 위의 진행경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구조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체이널리시스 보고서¹⁴⁾에 따르면 전체 불법자금의 62%가 모이는 중앙화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환전 서비스로 이용되는 주된 목적지로 나타나고 있다. 암호화폐의 등장이 범죄조직에게는 자금을 세탁하기에 아주 적합한 방법이고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통한 체인 호핑도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¹⁵⁾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돼지도살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금융기관에서의 대처가 매우 소극적인 것이 문제이다. 실제 피해자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 받지 못한 채 종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피해를 보게 된다. 실제 대부분의 범죄조직이 해외에 있어 공조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T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가상자산이나 돼지도살 사기 사건의 경우 트렌드에 맞게 진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욱 크게 양산될 것이다. 이미 각 기업에서는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이나 경찰에서도 예의주시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선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법은 느리게 움직이고 범죄는 빠르게 진화한다는 점에서 법안 마련보다 빠른 예방책을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도살 사기범죄의 공식통계 등을 찾기 어려워 외국 보고서나 기사 등을 수집하여 범죄유형을 분류한 것

14) <https://www.chainalysis.com/>

15) 체인호핑은 한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자금을 이동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전략이다.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사례가 크지 않으면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는 문제점과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 수사와 법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FBI에서는 돼지도살 사기범죄를 위험한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 진화와 범죄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적 제언과 법적 제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24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References

- [1] <https://crypto.com/university/ko/pig-butcherer-scams>
- [2] <https://m.blog.naver.com/cryptoturtle2510/222822684773>
- [3]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115086>
- [4] <https://universe.brwcs.com/entry/%EB%8F%BC%EC%A7%80%EB%8F%84%EC%82%B4-%EC%8A%A4%EC%BA%A0>
- [5] <https://writhinglab.tistory.com/entry/>
- [6]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11135#>
- [7] <https://www.chainalysis.com/>
- [8] <https://www.cryptopolitan.com/us-authorities-pig-butcherer-crypto-scam>
- [9] <https://www.elliptic.co/resources/nfts-financial-crime>
- [10] <https://www.globalantiscam.org/about>
- [11] <https://www.globalantiscam.org/post/statistics-of-crypto-romance-pig-butcherer-scam>
- [12] <https://www.gt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52>
- [13] <https://www.ic3.gov>
- [14] <https://www.oeth.com/ko/liquidity-pool-defi>
- [15] <https://www.statista.com/>
- [16] <https://www.wired.kr/news/articleView.html?idxno=4623>
- [17] https://www.youtube.com/watch?v=_i7yzSEBkoM
- [18] <https://xangle.io/insight/research/63732339bd7cbc367e003134>
- [19] Song, H.J. (2023). "A study on the analysis of fraud crime types according to S NFT transac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9, No. 4, pp. 908-915.